‘의정갈등 여파’ 전남대병원 병상 가동·수술 건수 급감

작년 가동률 52.2%…2023년比 19.3%p↓

수술 1만3천216건…2년새 30.1% 감소

서미화 “진료역량 회복·필수의료 강화를”

의정갈등과 지역의료 공백으로 위축된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전남대병원의 병상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최근 2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남대병원의 병상가동률은 52.2%에 불과했다. 이는 2023년 71.5%에 비해 19.3%p 감소한 수치로 감소율은 27.0%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2024년 56.4%로 급락한 뒤 2025년에도 56.4%에 머물렀다. 2023년과 비교하면 17.3%p 하락한 수준이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등 자구책을 펼쳤지만, 의정갈등 이후 위축된 진료량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 건수 역시 급감한 뒤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전남대병원의 지난해 수술 건수는 1만3천216건으로, 2023년 1만8천909건에 비해 30.1% 감소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는 2023년 19만 3천213건에서 2024년 12만 8천231건으로 33.6% 급감했다. 2025년에는 14만5천810건으로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2023년보다 24.5% 적은 수준이다. 2026년 6월까지도 8만 9천804건에 그쳐 수술 역량의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은 지역에서 중증·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의정갈등 이후 병상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한 뒤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은 2025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진료 역량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올해 8월부터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 6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의정갈등과 지역의료 공백으로 위축된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중증·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과 진료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 1조 이상 적립”

“농어촌 지원, 퍼주기·재정낭비 아냐”

“농지전용 태양광 사업하면 몇배 소득”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천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확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익을 보는 영역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다.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사람이 심장만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다”라며 “모세혈관이 튼튼해져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도 나서겠다”면서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

노벨물리학상에 ‘우주관측 새 지평’ 할전

뉴트리노 관측 연구 기여 단독 수상

2026년 노벨물리학상은 뉴트리노(중성미자) 관측 연구에 크게 기여한 벨기에 태생 미국 물리학자 프란시스 할전(82·사진)에게 돌아갔다.

그는 이례적으로 단독 수상자로 호명됐다.

노벨 물리학상 단독 수상 사례는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물리학자이며 다중선 비례 검출기를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던 조르주 샤르파크(1992년) 이래 34년만에 처음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아이스큐브(IceCube) 뉴트리노 관측소에 대한 결정적 기여와 천체물리학적 기원의 고에너지 뉴트리노의 발견”의 공적을 인정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올해 물리학상 총 상금은 1천200만 스웨덴 크로나(16억1천만원)이며, 할전은 단독 수상자로서 상금 전액 지분을 인정받았다.

할전은 남극 아문센-스콧 남극점 기지에 있는 ‘아이스큐브 뉴트리노 관측소’의 연구 책임자다.



2010년부터 가동 중인 이 관측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뉴트리노 검출 장치다.

할전은 현재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의 석좌교수로도 재직중이다.

마크 피어스 노벨 물리학 위원회 위원장은 “할전은 우리에게 환상적인 관측 장비를 선사한 국제 연구진과 엔지니어 팀을 이끌어 왔다. 그의 끈기와 과학적 비전은 새로운 종류의 천문학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초고에너지 뉴트리노의 관측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우주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 선정 발표는 5일 생리의학상, 6일 물리학상 결과가 각각 나왔으며, 앞으로 7일 화학상, 8일 문학상, 9일 평화상, 12일 경제학상 발표가 남아 있다. /연합뉴스

김병내 시장군수구청장협 대표회장 국무회의 첫 참석

“지역 문제 전국 의제 되도록 할 것”



김병내(전남광주특별시 남구청장·사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9일 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김 대표회장은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면서 “가능한 한 모든 국무회의 일정에 참석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헌법상 기구인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시·군·구를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민선자치 30년 출발에 맞춰 확연히 달라진 기초 지방정부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재고합5
내란 등
피 고 인 망 정운석(판결문 상 이름: 정태석)
위 피고인은 내란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 9. 29.
재판장 판사 김 용 규
판사 김 민 지
판사 최 양 우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 세 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 자 금 약 정 금 임 대 료 구 상 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228-0990, 010-4601-1390

[광주30분 국도변 공장 반값매매]
○ 곡성읍 국도변 계획관리 4,000평
공장3동, 사무동, 사택동 등 5개동/지붕태양광설치
급매22억(은행융자16억) 현금6억 인수가능
*** 은행이자는 태양광에서 충당하고 남습니다
무얼해도 돈이되는 부동산 매물입니다.
[아파트 급매물]
○ 산수동568-1 두암타운 대단지 로얄층47평
방4 욕실2 남향 앞뒤베란다 [급]급처분 2억7,000
○ 유동 모텔(허가권있음)상업지56평 5층건물210평
객실20개 모텔, 원룸, 사옥, 사무실, 생숙등 최적
[급]급매 2억9,00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져(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